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가금류, AI, 홍콩, 경기도, 수입재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가금류, AI, 홍콩, 경기도, 수입재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03. 26.
경기도 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홍콩 수출 중단

2016. 08. 18.
한국,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2016. 08. 22.
한국, 홍콩에
수입 재개 요청

2016. 09.06.
경기도산 가금류
對홍콩 수출 재개



핵심이슈
도출

“경기도산 가금류, 홍콩 수출 재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경기도산 가금류, 홍콩 수출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중단되었던 경기도 산 닭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류의 對홍콩 수출이 한·홍콩 검역당국의 협의를 통해 재개되었음을 발표했다.

홍콩은 2015년 12월 5일, '가금류 및 계란 수입 개정안'을 발효하여 홍콩으로 가금류와 계란을 수입할 경우 홍콩 식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국제적으로 발생하면서 조류 질병에 대한 관심과, 질병에 감염된 조류의 계란 역시 위험하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홍콩은 가금류 소비가 높아 연간 13~17억 달러 규모의 가금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가금류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에 취약한 항목으로, 홍콩은 가금류 질병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금년 3월 경기도 이천, 광주 일대에서 재발생하여 홍콩으로의 가금류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검역당국이 AI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여 지난달 18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여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측에 신선 가금류의 수출 재개를 요청하였고, 양검역당국의 협의를 통해 9월 6일 부터 對홍콩 가금류 수출이 재개되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이번 한·홍 정부간 협의 결과에 따라 9월 6일 이후 생산한 경기도산 닭·오리·계란 등 가금류를 사용하여 만든 신선 가금류 제품은 모두 수출이 가능하며, 3월 수출 중단 이전 홍콩 정부에 등록된 경기도 수출 작업장 4곳에서 생산된 제품도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에 양측 정부 간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가금류 홍콩 수출 절차는 검역시행장 사전 신청 → 도축계획서 제출 → 출하농가 질병 비발생 여부 확인 → 도축검사 → 제품 생산 → 검역신청 → 역학조사 → 현물검사 → 검역 증명서 발급 → 선적 확인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